

봄 나비축제·여름 돌머리 갯벌 체험·가을 국화 세상

함평 사계절 관광명소로 뜬다

자연생태공원·엑스포 공원으로 관광객 몰려

매년 친환경 생태체험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함평군이 사계절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5월이면 살아있는 나비와 자연을 소재로 펼치는 나비축제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수년 전 이미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다, 나비축제 전시장뿐 아니라 함평 관내 곳곳이 관광코스 이들을 얻어가고 있다.

이 8천680ppm으로 가장 낮았고, 충남 대천과 전북 변산이 2천500~4천ppm 정도였다. 가장 속초는 1천ppm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포기는 보존·협유유지·번비예방·월관확장·삼투압조절능력 계획을 하는 갈륨(Ga)도 신안 1천238.6ppm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혈액 응고 촉진작용 등을 하는 칼슘(Ca)도 468.5ppm으로 가장 많았다. 함양 효과와 엔돌핀 성장 촉진 등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게르마늄(Ge)과 마그네슘(Mg)도 각각 0.241ppm과 1천236.1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있고, 우수강으로 안경·바람개비·곤충 등을 만드는 공작물체합성이 마련돼 도시 어린이들이 몰랐던 농촌의 향기를 일깨워준다. 사계절 탐방학습과 생태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자연생태공원 역시 일년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생태공원은 생태연못, 나비·곤충표본 에베레스트관, 장수풍뎠이 체험장 등 각종, 무궁화동산 관찰로, 정크아트 조각원, 수서곤충 관찰학습장, KBS 어린이드라마 '후토스' 촬영장, 바다분수, 벽천폭포, 전망대, 독도섬 등이 곳곳에 꾸며져 있다. 함평읍에 위치한 아시아의 생태문

화관광지 엑스포공원을 빼놓을 수 없다. 수백여 종의 나비와 곤충을 전시하고 있는 나비생태관, 탁 트인 자연에서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습지학습장, 소금 102kg으로 제작한 국내 최대의 황금박쥐 모형물과 박쥐 등 야생 황금박쥐 생태관, 다양한 허브향기를 맡을 수 있는 원예치료관 등이 엑스포공원 내에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젝트를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진도로 관광 오세요 진도군 공무원들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진도'를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달 30~31일 남이섬에서 '진도의 날' 행사를 갖고 특산품을 판매했다. (진도군 제공)

해남 고구마 '붉은빛 막걸리' 변신

향 뛰어나고 당도 높아 여성들에 인기

해남 고구마가 붉은빛 막걸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해남군 옥천주조장(사장 송우중·46)은 지난 1년간 실험을 통해 지난달 자색 고구마를 원료로 한 붉은색 막걸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막걸리는 해남산 자색 고구마와 밤 고구마, 쌀을 주원료로 빚은 것으로 일반 막걸리보다 향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다.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도 깔끔한 느낌이 들어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송우중 사장은 1일 "신조들이 고구마로 농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지난달 자색 고구마를 원료로 한 붉은색 막걸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자색 고구마 막걸리는 1.7ℓ 3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3대째 기업

을 이어받아 막걸리를 생산하는 옥천주조장 송 사장은 고구마 막걸리와 고구마 식초·쌀 식초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한 신진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사장은 "해남에는 고구마와 쌀 등 집종은 특산품이 많아 가공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 좋다"며 "색과 맛을 내는 과정에서 술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빛깔 고운 막걸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전남 해수욕장 바닷물 피부노화 방지에 좋아

미네랄·게르마늄 풍부

전남지역 해수욕장의 바닷물이 피부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노폐물 제거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와 전남도 해양바이오 연구원이 공동으로 신안·증도·압해도 해역과 ▲강원 속초 ▲부산 기장 ▲충남 대천 ▲전북 변산 등의 바닷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신안 해역의 바닷물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분석 결과 체내의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 미네랄은 신안

이 8천680ppm으로 가장 낮았고, 충남 대천과 전북 변산이 2천500~4천ppm 정도였다. 가장 속초는 1천ppm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포기는 보존·협유유지·번비예방·월관확장·삼투압조절능력 계획을 하는 갈륨(Ga)도 신안 1천238.6ppm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혈액 응고 촉진작용 등을 하는 칼슘(Ca)도 468.5ppm으로 가장 많았다. 함양 효과와 엔돌핀 성장 촉진 등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게르마늄(Ge)과 마그네슘(Mg)도 각각 0.241ppm과 1천236.1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강진 문화체험 못잊을 거예요"

필리핀 밤반시 교사·학생들 강진 방문 영랑생가 둘러봐

강진에서 2주간 정규수업과 문화체험을 한 필리핀 밤반(Bamban)시 답답(Dapdap)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달 31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주간 강진 중학생들이 답답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과 문화체험을 가진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필리핀 방문단 17명은 강진 성요셉여고 학생들과 3박4일 동안 난타공연과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청남대·공공사관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상요셉여고에서 정규수업·음악·미술·체육활동, 특별한 수업 등에 참여하고 영랑생가와 청자박물관을 돌아본 뒤 마량미향 도요음악회를 관람했다. 특히 지난 1월에 필리핀을 방문했던 강진학생들 앞에서 1박2일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서로의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 필리핀 학생들은 "강진에서의 생활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강진을 방문하고 싶다"고 소망을 나타냈다. 상요셉여고 재가해(1년) 학생은 "이번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기회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어린이 장난감 빌려 줍니다

나주시회복지관 '장난감 도서관' 개관

지난달 28일 나주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개관한 '장난감 도서관'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나주시로부터 6천여만원을 지원받아 170㎡(60여평)의 공간을 갖춘 이 도서관은 7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해 장난감 대여, 자유놀이실, 프로그램실, 장난감 소독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성장이 연령별로 교육효과를 고려해 360여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해놓고, 연간회원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에 대여해주고 있어 이용 문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태. 연간회비는 1만원, 대여료는 일주일당 1천원이다. K모(35·나주시 북복동)씨는 "우선 장난감을 구입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다"면서 "교육효과가 큰 장난감을 선택하기 위해 자주 도서관을 찾은 계획"이



라고 말했다. 도서관측은 이용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 당분간 일주일 대여품목을 2점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들의 위생문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반납된 장난감을 철저히 소독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관계자는 "충분한 회원이 확보되면 레고고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나주 최초의 장난감 도서관이 어린이들의 놀이·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1-332-8991) /나주=최철성기자 srchoi@

완도 광어 미국 간다

드림피쉬, 주 1~2수 수출

완도산 광어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돼 지역 양식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완도군은 미주 수출업체인 ㈜드림피쉬에서 매주 1~2톤의 완도산 광어를 인천공항을 통해 무수(無水) 동면

방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현지에서 홍보관을 설치한 드림피쉬는 오는 9월부터는 물량을 3~5t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수입업체 급증, 사료값 인상,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민들에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완도산 광어는 올해 초보다 kg당 3천원 오른 1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Large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including a table of legal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IN (주)국민법률경제대'.